

‘K-푸드 대표’…서울서 ‘전남 세계 김밥 페스티벌’

전남도, 내달 1~3일 여의도한강공원
김 수출 1조원…한국 대표 수산식품
30여 체험 프로그램·김 판매 마련
“전남산 김 브랜드 가치 제고 주력”

최근 김밥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모으면서 ‘K-푸드’의 대표 주자로 떠오른 가운데 서울에서 전남 김밥축제가 열린다.

전남도는 오는 11월1일부터 3일까지 서울 여의도한강공원에서 내외국인이 참여하는 ‘2024 전남 세계 김밥 페스티벌’을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

김은 지난해 농수산물 수출액 1조 원 시대를 열며 대한민국 대표 수산식품으로 성장했다. 수출 국가도 지난 2010년 64개 국에서 2023년 124개국으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런 가운데 국내외 김 시장 확대에 맞



전남세계김밥페스티벌 포스터.

춰 기업이 원물 확보를 위해 산지인 전남으로 내려오는 추세인 점을 감안, 전남도

는 김 관련 축제를 통해 우리나라 김의 80%인 전남산 김의 글로벌 브랜드 가치를 더욱 높여 김산업을 주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

특히 전남산 김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마른김 품질등급제와, 국내외 바이어가 전남에서 좋은 김을 구입하도록 운영하게 될 국제 마른김 거래소 시행에 앞서 전남산 김의 우수성을 알릴 방침이다.

이번 행사는 크게 주제존, 체험존, 마켓존, 전일염존 4가지 테마로 운영되며, 주무대 등에서는 30여 체험 프로그램으로 방문객을 맞이한다.

주제존에서는 전남 농산물로 된 속재료로 만든 김밥과 함께 전복, 꼬막, 새우 등 수산물을 활용한 나만의 커스텀 김밥을 입맛대로 만들어 맛볼 수 있다. 또한 축제를 상징하는 대형 김밥 모형의 조형물을

세워 방문객이 추억을 만드는 공간으로 활용되도록 구성한다.

체험존에서는 우리 밥상까지 전달되는 김의 역사를 알아보는 전시관과 김의 생산 과정을 살펴보고, 방문객이 옛 방식의 김 뜨기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다. ‘김밥도 예술작품이 될 수 있다’는 주제로 눈으로 즐기고 맛으로 한 번 더 먹는 캐릭터아트 김밥 쿠키클래스를 국제푸드아트협회와 함께 진행, 아이들과 연인들이 참여해 예쁜 김밥을 만들어볼 수도 있다.

마켓존에서는 전남에서 생산되는 손질 전복, 전복김치볶음밥, 김부각 등 간편하게 조리할 전남산 수산식품류로 구성된 씨푸드마켓과 조미김, 곱창김, 파래김 등 다양한 전남산 김 제품을 구매할 판매관으로 꾸며진다.

전일염존은 전남의 최고 품질을 자랑하는 전일염의 히스토리를 연도별로 구성한

역사관과 전일염 생산지 홍보관 운영 및 전일염을 활용한 치유쉼터와 소금사우나, 전일염 족욕 체험 등 다양한 웰빙체험도 즐길 수 있다.

이밖에도 외국인과 어린이가 만드는 이색김밥 경연대회와 전남의 고품질 수산물 경매소, 밴드라인업 단짠콘서트 등 체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

또한 국내에서 활동하는 유명 김밥 큐레이터와 한국과 한식을 사랑하는 외국인 셰프가 함께하는 김밥 토크쇼 등 김밥으로 엮어가는 스토리로 흥미가 더해질 전망이다.

강석은 전남도 수산유통과장은 “세계 김밥 페스티벌을 통해 김 산업을 전남이 주도하도록 전남산 김 브랜드의 가치를 지속해서 높일 계획”이라며 “전남산 김의 품미와 수산식품을 직접 느껴보길 바란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전남도, 중기-미취업 청년 매칭 지원

급여 일부 지원·인센티브 등
5인 이상 사업장…18일까지
청년은 내달 15일까지 신청

전남도가 중소기업의 구인난을 해소하고 미취업 청년의 구직을 돕기 위한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 참여 기업 및 청년을 모집한다.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이 미취업 청년을 신규 채용 시 1년간 급여 중 일부를 지원(월 92만원)하는 사업이다.

또한 기업이 청년 근로자를 1년 이상 고용유지 및 정규직 유지·전환 시 기업과 청년에 각 200만원씩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청년의 입사 초기 적응 지원을 위한 온보딩 교육 등을 제공한다.

실제 전남은 지역 경제·산업 구조상 중소기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고용정보 부족 및 인력수급 불일치에 따라 구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반면 최근 청년층의 ‘쉬었음’ 인구가 전국 70만명에 이르고, 6개월 이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청년이 55.7%(5만619명)에 달하는 등 청년 실업 문제는 심화되고 있다.

광주시,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 쉼터 ‘인기’

심리 상담 등 두달새 452명 이용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들에게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 기회를 제공하는 ‘광주시 일상쉼터 지원사업’이 인기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7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와 함께 추진하는 ‘마음 쉽고 함께하는 여성 플랫폼 이동노동자 일상쉼터 지원사업’이 두달여만에 452명의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들이 힐링서비스를 받았다고 밝혔다.

플랫폼 이동노동자는 가사관리사, 보험 모집인, 요양보호사, 학습지방문교사, 대리운전기사, 배달기사 등 다양한 직종이 있으며 주로 고정된 업무공간 없이 일터를 이동하며 고객을 응대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들의 정신적·육체적 휴식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을 신청해 지난 3월 선

이에 전남도는 청년일자리 창출 및 기업 맞춤형 인재 채용 지원을 위해 올해 신규로 전남 청년 희망 일자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기로 했다.

대상 기업은 18일까지 중소기업이나 사회적경제기업으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이면 가능하다. 청년은 전남에 거주하는 2024년 기준 18~45세(1978년~2006년 출생) 미취업 청년이다.

사업 참여를 바라는 기업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이메일 jnjob2410@naver.com)에 신청하면 된다. 전남도는 심사·평가를 거쳐 적격기업을 선정해 발표할 예정이다.

청년은 오는 28일부터 11월15일까지 전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https://job.jeonnam.go.kr/>) 누리집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절차는 참여 기업 선정 후 기업이 청년근로자 채용 공고를 하면 청년이 기업에 입사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후 전남 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에서 기업·청년 간 최종 매칭을 통해 선정·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중소기업일자리경제진흥원(061-750-7741)에 문의하거나 전남도일자리통합정보망(<https://job.jeonnam.go.kr/>)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오지현 기자

정, 7월부터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업은 광주시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심리검사, 심리치유 프로그램, 1:1 심리상담 등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의 스트레스 해소와 휴식 기회를 지원하고 있다.

실제 지난 7월22일부터 9월30일까지 센터에서 ‘일상쉼터 지원사업’을 운영한 결과, 온라인 심리검사 400명, 심리치유 프로그램 42명, 1:1 심리상담 10명 등 총 452명의 플랫폼 이동 여성노동자들이 참여했다.

센터는 또 모든 참여자에게 일터를 이동하는 동안 근처 카페에서 휴식할 수 있도록 커피 쿠폰도 제공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여성노동자는 “심리치유 프로그램에서 진행되는 얼굴 꾸미기, 꽃꽂이를 통해 서로 칭찬을 주고 받으면서 자아를 확인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노병하 기자



서구, 경로당 놀이대회

광주 서구 관내 어르신들이 15일 서구 빛고을체육관에서 열린 ‘경로당 놀이대회’에서 투호놀이, 한궁, 고리던지기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나건호 기자

호남권 최대 식품박람회 ‘광주식품대전’ 17일 개막

광주시, 20일까지 김대중센터서
300개사 450부스 운영…경진대회도
국내 유통MD 구매상담회 병행

광주시는 호남권 최대 식품박람회인 ‘2024 광주식품대전’을 오는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동안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연다. 특히 올해 광주식품대전은 그린 앤 애그리테크(GREEN & Agritech), 주류관광페스타, 국제차문화전시회와 함께 열려 더욱 다양하고 풍성한 전시를 경험할 수 있다.

15일 광주시에 따르면 ‘푸드테크, 광주광역시 미래 신성장 산업 육성’을 주제로 한 올해 광주식품대전에서는 300개사가 참여해 450개 부스를 통해 지역 농·수산

식품, 푸드테크, 음료&디저트, 건강·기능식품, 식품산업 기기 등 다양한 식품군을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광주식품대전은 참관객과 만남(B2C)을 비롯해 최고의 비즈니스 기회(B2B)를 통한 제품 홍보 및 판로 확대를 제공하는 식품 산업전시회이다.

전남대학교 푸드테크학과, 나주푸드업사이클링센터, 리하베스트, 오성시스템, 오엠오 등 대학과 지역 기업이 참여한 푸드테크 특별관(8곳)에서는 지역푸드테크 산업을 소개한다.

또 광주·대구 달빛동맹관, 고흥군 스마트팜사업소, 향토음식특별관, 보해양조&완도금일수협 홍보관, 제주특별관 등 각 지역 대표 식품군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

(CCPIT) 귀주성위원회(30개사)와 캄보디아대사관(6개사) 등 역대 최대 규모의 해외관이 참가해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한다.

이밖에 국내 판로 개척을 위한 △국내 유통엔디(MD) 구매상담회(25개사) △광주대표음식 요리경연대회 △제과제빵 경진대회 △카스(CASS) 파크 & 맥케비마켓 프로그램이 열린다. 또 국내 최초의 한글 모양 비스킷류 과자를 연구 개발한 외국인 방송인 ‘타일러’, ‘니디’도 참여해 눈길을 모은다.

광주식품대전은 사전등록자에 한해 무료입장할 수 있으며, 전시 기간 매일 선착순 300명에게 기념품 증정 이벤트를 진행한다.

노병하 기자

전남도,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자 모집

전남도는 오는 31일까지 소형 이(e)-모빌리티 산업 확산의 신호탄인 ‘전남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사업에 참가할 특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원 자격은 국내에 사업장이 있고 향후 특구지역(영광 일원(47.47km²)) 사업장이거나 신설이 가능한 기업이라면 오는 31일까지 이메일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남도 누리집 고시·공고

란과 전남테크노파크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조하면 된다.

신청 기업은 선정평가 절차를 거쳐 특구 사업자로 지정되며, 특구 사업자가 될 경우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4륜형이륜차, 초소형전기차 등 4개 실증사업 및 기술개발 등에 참여할 수 있다.

전남도는 2019년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 전기자전거의 자전거 전용도

로주행 허용 등 산업 육성의 걸림돌인 6건의 규제를 해소하고, e-모빌리티 기업 9개사와 1154억원의 투자유치를 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다.

이번에 후보특구로 지정된 ‘소형 e-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에서도 혁신기업과 함께 농어촌의 사용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규제해소를 통해 이모빌리티 산업의 확산과 성공적 규제자유특구 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오지현 기자